

시정권고사례

시정권고사례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아울러 제3자에 의한 신청도 심의하여 그 시정을 해당 언론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결된 사례를 자체심의 및 신청심의로 구분하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한 건의 보도내용만으로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특정되는 주문 부분은 생략하고, 실명 및 주소 등이 보도되어 문제가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예를 위하여 ○○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편집자주

자체심의 시정권고

〈안전번호 2006자심2〉

〈안전번호 2006자심1〉

보도내용

「양산시 ○○읍 ○○사의 창건주이자 전 주지인 모스님(70)이 사찰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사찰의 종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인 A(29)와 B(26)씨는 약 2년동안 스님으로부터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스님의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직위 및 소속 사찰의 명칭과 소재지를 읊까지 밝히면서 창건주임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보도내용

「... 지난 10월 19일 저녁 7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신협중앙회 앞에서 경기 ○○가○○○호 엘란트라 승용차(운전자 김모씨·23)가 전북○○다○○○ 레조승용차(운전자 민모씨·44)를 들이받아 레조승용차 운전자 민씨와 같이 타고 있던 유모양(18)에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때마침 이를 지나던 택시기사 최모씨(46)가 이를 발견하고 엘란트라 차량번호를 기재해 뒀다가 지난 8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동사무소 앞에서 같은 차량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차량의 종류 및 차량 번호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 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건번호 2006자심3 - 2006자심4〉

보도내용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시청 공무원들인 ○모(40·기능 ○급)씨 등 3명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고등동 G다방 앞 노상에서 “경적을 크게 울렸다”며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40) 씨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 등은 김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격분한 김씨도 윤씨 등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다툼이 있었으며, 폭력 등의 혐의로 4명 모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건번호 2006자심5〉

보도내용

「통영해양경찰서는 8일 동료 선원을 흥기로 찢러 상해를 입힌 부산선적 ○○○○○호(115톤) 선원 이모(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통영 육지면 국도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 동료 선원인 문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 끝에 문씨의 목에 흥기로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명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건번호 2006자심6〉

보도내용

「의정부지검 ○○지청은 택시 무선콜 단말기에 대한 불만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합장 김모(53) 씨를 구속했다. 김모 씨는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 ○○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인택시에 부착한 무선콜 단말기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납품 업체인 C사 간부로부터 “불만을 해소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건번호 2006자심7〉

보도내용

「화성과 오산에서 각각 편의점과 아파트 계단에서 잇따라 강도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

일 경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47분께 화성시 우정읍 ○○리 ○○○마트 앞에서 30대 중반의 남자가 손님이로 가장해 들어온 뒤 강도로 돌변, 흥기로 주인 이모 씨(45·여)를 위협해 현금 12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8>

보도내용

「자신이 성폭행한 여자의 집에 다시 들어가 도둑질을 하던 10대가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과 이웃집에 놀러왔던 남자에 의해 검거됐다. 3일 낮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모 원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박모(여·25) 씨는 낮선 남자가 방안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 때마침 함께 있던 강모(25·청원군 ○○면 ○○○리) 씨가 검거해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에 의해 붙잡힌 절도용의자 김모(19·괴산군 괴산읍)군은 이미 지난해 12월 12일 밤 10시께 이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박씨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한 뒤 핸드폰과 현금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강간사건 검거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

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9>

보도내용

「... 부천중부경찰서는 9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도를 일삼던 이모(고3)군 등 같은 학년 3명을 붙잡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중략 ...이군 등은 또 지난 2일 새벽 3시 20분 경 ○○동 ○○○번지에 있는 모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 이모(49) 씨의 머리를 삼패인 병으로 내려쳐 실신시킨 후 현금 89만 여원과 담배 40여 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중인 점포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10>

보도내용

「직장상사가 갓 입사한 여직원을 더듬다 못해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에까지 음담패설을 올려놓는 등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세모를 어둡게 하고 있다. 휴대폰, MP3, 전화기류 디자인개발제품 설계 회사 (주)○○○○(경북 ○○군 ○리) 회사간부 정모(40)이사가 K모양(25, ○○시 ○○읍)에게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게다가 미혼여성인 K모양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고 원치 않

는 사직서를 급기야 제출, 현재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상사의 성과 나이 및 피해 여직원의 성의 영문이니셜·나이·읍단위의 주소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 및 소재지와 함께 피해자가 미혼인 사실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11>

보도내용

「... 당시 A씨가 우편주문한 마약은 캐나다에서 과일잼 병 속에 담겨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됐다. 또 지난해 9월15일 서울 목동 국제우체국에서는 중국에서 소포로 부쳐온 송이버섯 상자의 냉장 포장재에서 50억원 상당의 OOO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인도에서 배달된 화장품통 안에는 OOO를 농축한 OOO 1.5kg이 들어 있기도 했다. 이밖에 책 안에 흠을 파고 그 안에 OOO을 숨기거나 땅콩버터와 치약의 내용물을 마약류로 바꿔치기해 들여오는 사례도 있다. 수산물을 수입하는 척 하면서 생선의 뱃속을 OOO으로 채우는가 하면 마약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파스 접착면에 발라 들여오기도 한다. 'OOOO' 등 신종 마약의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의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인체에 위험한 환각성분인 OOOO를 함유한 OOOOO와 환각제의 일종인 중국산 OOO가 세관에 처음 적발됐다. 'OOOO'은 남미 인디언들이 주술 등에 사용해왔던 환각제로, 버섯에 함유된 마약성분인 OOOOO는 OOOOOO(일명 OOO)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로 유럽지역에서 유통됐던 마약의 일종인 OOOOO가 중국에서 대량 생

산된 뒤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종류·환각적 효능·구입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12>

보도내용

「... 경찰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해 인터넷 카페 한줄메모장을 통해 마약 판매를 광고한 뒤, 구입을 희망하는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마약을 판매해 왔다는 것. OOO(1kg당 OOO만원)과 OOOO(1정당 OOO만원) 대금은 국내 환치기 계좌로 입금되었고 마약은 중국에서 항공택배를 이용해 우편엽서나 서류로 위장해 국내에 배송됐다. ---중략--- 중간공급책 김아무개 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OOO'(OO)라는 마취제와 각성제 효과가 있는 마약식물을 구하는 네티즌을 위해 인터넷 지식검색으로 'OOOOO'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메일을 통해 알게된 조선족 판매자와 메신저 대화로 마약류 구매방법과 가격 등을 알린 뒤 거래해 왔다. ...중략... 이들은 대부분 OO나 OOO 등에 타서 마시고, OOOOOO에 OOO을 넣고 OO에 희석시켜 팔뚝에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임산부 송아무개씨는 중간공급책인 의료도매업자 오아무개(31·구속)씨로부터 OOO을 구입해 3차례에 걸쳐 Og을 복용했고, 고교생 이아무개(17)군은 OOOg의 마약류를 복용하다 적발됐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종류·사용량·사용방법·

구입방법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 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0>

보도내용

「안성시 소재 ○○아파트 ○○○동 ○○○호 거주하는 노인이 자신의 베란다에서 투신, 현장에서 숨졌다. 8일 오전 7시 15분경 근무교대를 하던 정문 경비원 박○○ 씨(67)가 평 하는 소리에 나가보니 101동 보도위에 사람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119구조대 등이 출동하였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1306호에 거주하는 ○○○씨(65)로 신원을 파악, 투신 자살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명·나이와 함께 생존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칭·동·호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1>

보도내용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께 울주군 ○○면 ○○리 자신의 방 안에서 김모(51) 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가족인 이모(여·51) 씨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10년전 부인과 헤어진 뒤 술로 지내왔다는 유족측의 말에 따라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전번호 2006자심22>

보도내용

「... 지난해 9월 24일 발생한 충북 청원군 ○○○○ 화재로 다니던 직장을 잃은 최모 씨(53)는 3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의 뒤를 따랐다. 최씨는 새해맞이로 모두가 행복해 하던 1일 새벽 2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아파트 공터에서 전신주에 목을 매고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발견됐다. 10년 간 ○○○○서 운송업무를 하던 최씨는 청원공장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뒤 딸과 함께 숨진 아내의 수술비를 갚느라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전 아내가 위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숨진 후 그동안 들어갔던 수술비를 위해 은행 등에 빌린 돈으로 인해 최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왔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근무처·담당 업무·근무 연수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건번호 2006자심23〉

보도내용

「... 9일 밤 11시 34분께 정읍시 ○면 ○○리에서 이모씨(76)가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씨의 동생이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중략... 이에 경찰은 이씨가 신변을 비관해 농약을 마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 23.

〈안건번호 2006자심24 - 2006자심26〉

보도내용

「성남남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후임병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행 등)로 ○○시 ○○구청 공익근무요원 정모(2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달 9일 오전 11시께 ○○구청 화장실에서 후임병 A(20)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하반신 나체사진을 촬영해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건번호 2006자심27〉

보도내용

「공기총을 소지한 복면 쓴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한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오후 9시 20분께 부안군 ○○면 ○○리 이모 씨(60)의 집에 공기총을 든 강도가 침입,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진술에서 이씨는 “아내와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문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빨간색 병거지모자를 둘러 쓴 사람이 공기총으로 위협하며 집안에 들어와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뒤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건번호 2006자심28 - 2006자심37〉

보도내용

「○○경찰서 ○○과장 ○모 경정이 자신이 묵던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쯤 ○○시 ○○동 H아파트 발코니에서 심과장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장동료 심모 경사가 발견했다. ...중략... 심 과장의 숙소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마음고생을 시켜 미안하다. 우울증으로 업무 한계에 달했다.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심 과장이 최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우울증세를 보였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유서를 통

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직업·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38 - 2006자심40>

보도내용

「... 20일 오후 3시께 경북 OO군 OO면 OO리 OO중 교원사택에서 이 학교 교감 권모(51) 씨가 넥타이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권씨의 아들(21)과 행정실장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숨진 권 교감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교감으로 승진 발령받아 안동에서 영덕으로 부임한 후 가족과 떨어져 학교 사택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OOO중은 1955년 설립된 공립학교로 3학년 규모의 소규모 학교다. 전체 교직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모두 10명(남4, 여6)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교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직하던 학교의 이니셜·연혁 등과 함께 소재지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44>

보도내용

「성남시 OO구청 OO과에 근무중인 김모(43·O급) OO팀장이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김 팀장의 집에서 김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들에 따르면 김 팀장은 2004년부터 1년동안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논문작성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지난해 12월 OO구청 OO과로 복귀했지만 병세가 심해지자 지난달 31일 병가를 낸 뒤 대전 본가로 내려가 치료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직급·직위 등과 함께 본가의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전번호 2006자심45>

보도내용

「9일 오후 4시 35분께 나주시 OO면 OOOOO 지하 변전실에서 직원 이모 씨(49·기능직 7급)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인 또다른 이모 씨(3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나 생존시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2. 20.

〈안건번호 2006자심46〉

보도내용

「양산시 ○○읍 ○○○의 창건주인 모 스님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2명이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며 법무부와 법원, 청와대, 국회의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략… ○○○ 전 여직원인 강모(28·부산시 ○○구) 씨와 홍모(25·양산시 ○○읍) 씨의 진정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7개월과 2년 동안 ○○○의 종무소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전 창건주인 모 스님(72)을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강씨 등은 당시 전 창건주인 스님이 직장을 불모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불러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성폭행의 범위까지 확산되는 등 치욕적인 수모를 견디지 못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나이·前 근무처·근무 기간 등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의자인 스님의 나이·소속 사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읊까지 적시하고 창건주라는 사실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 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건번호 2006자심47 - 2006자심48〉

보도내용

「수원 ○○경찰서는 선배 의경이 후배의 군기를 잡는다며 구타한 혐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소속 유모(22) 수경 등 2명은 11일 오후 7시께 ○○구 ○○동 치안센터 대무반에서 후임 신모(22) 일경 등 6명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건번호 2006자심49〉

보도내용

「통영경찰서는 14일 공금 2억7,300만원을 횡령한 ○○○○○ 직원 김모(45·통영시 북신동) 차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7,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 임대료 13억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횡령한 돈으로 주식투자 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

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건번호 2006자심50 - 2006자심53〉

보도내용

「여수해양경찰서는 1일 파손된 선박을 무리하게 운항, 선원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여수 선적 62t급 외끌이 저인망 어선 ○○호 선장 김모(51) 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동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배가 암초에 충돌, 배 밑부분이 일부 파손돼 물이 차는데도 방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여수항으로 회항하다 나로도 해상에서 배를 침몰시켜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어선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항 선박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건번호 2006자심54〉

보도내용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원룸 하숙집에서 조선족 예비대학생 강○○(21·여·사진) 씨를 살해한 뒤 성관계를 한 황모(42·무직) 씨에 대해 8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동 강씨의 하숙방에 들어가 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경찰은 “강씨가 황씨에게 돈을 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강씨의 은행 현금카드 3장, 현금 3만 원, 중국 위안화 200원을 훔쳐서 달아났다. ...중략... 중국 지린성 출신인 강씨는 지난해 1월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에 건너와 ○○대 ○○○○에서 1년여 동안 한국어를 배웠으며 지난해 8월 말 수시 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대 ○○계열에 합격했다. 강씨는 숨질 당시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을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었다. 강씨의 어머니 ○○○(○○○·47) 씨는 “딸을 중국과 한국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키우고 싶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사건 피해자의 성명·나이·입학 예정인 학교명 및 계열·국적·출신 지역 등과 함께 어머니의 성명 및 나이를 적시하고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건번호 2006자심55〉

보도내용

「시흥경찰서(서장 박경민)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소란을 피우던 김모 씨(28세·여·주거부정)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밤 11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모 모텔객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 ○g을 ○○만원에 구입하여 ○○에 희석한 후 ○○○○○○를 이용하여 자신의 ○○○에 투약하고, 이후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신이 납치되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의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3. 20.

〈안건번호 2006자심56 - 2006자심58〉

보도내용

「술에 취한 아들의 방화로 70대 아버지가 불에 타 숨졌다. 15일 오전 0시 08분께 신안군 ○○면 ○○리 박모(70) 씨의 집에서 불이나 주인 박씨가 숨졌다. ...중략... 이날 불은 숨진 박씨의 아들(45)이 냈다. ...중략... 아들 박씨는 “평소 주사가 심하셨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자꾸 욕을 하자 겁을 주기 위해 불을 질렀다. 전혀 아버지를 해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의 아들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아버지의 나이와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건번호 2006자심59〉

보도내용

「용인경찰서는 17일 환경 관련 업체를 다니며 금품을 갈취한 ○○○○신문 본사 사무국장 박모 씨(46세, 특수강도 등 9범)등 4명을 검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문 취재본부장 및 취재기자들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322번지에서 세녹스 등 유사 석유를 제조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진 촬영하고, 판매자 박모 씨(45세, 장의사 영업사원)등 2명에게 접근, 3차례에 걸쳐 모두 325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건번호 2006자심60〉

보도내용

「...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심야에 수도권 일대를 돌며 행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속칭 ‘퓌치기’에 가담해온 혐의(강도상해 등)로 경기도 ○○시청 소속 공익근무 요원 최모 씨(2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김모 씨(25) 등 3명(18일 구속)과 함께 1월11일 오전 3시께 서울 송파구 삼전동 골목길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모 씨(여·27)를 승용차로 뒤따라가 마구 때린 뒤 핸드백과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수도권을 무대로 3차례에 걸쳐 퓌치기 수법으로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도 렌터카를 이용해 길가는 여성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 소속 공익근무 요원 박모 씨(22)와 친구 이모 씨(22·무직)를 이날 구속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건번호 2006자심61〉

보도내용

「포천경찰서는 27일 시각장애인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절취, 수백여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특수절도 및 횡령)로 김모(54·남·포천시 ○○면 ○○리)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2월쯤 시각장애인 신모 씨에게 접근, 인감도장과 예금통장 등을 넘겨받아 공범 김씨(50)에게 넘겨 포천 관내 모 은행서 330만 원을 찾아 착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건번호 2006자심62 - 2006자심65〉

보도내용

「50대 여성이 동거남의 집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전 9시 20분께 화성시 ○○면 ○○리 황모 씨(42) 집에서 동거녀인

서모 씨(51)가 암매장된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중략... 화성경찰서 발안지구대 권모 경장(40)은 “언니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받고 확인차 이날 집을 방문했는데 창고 바닥에 시멘트가 깨진 흔적이 보여 바닥을 파헤쳐 보니 서씨가 암매장된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와 함께 동거했던 황씨가 지난 3일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점 등으로 미뤄 황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황씨를 쫓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건번호 2006자심66〉

보도내용

「인천 남부경찰서는 16일 24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은 김모(27) 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분께 남동구 ○○동 ○○○○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 종업원 차모(26·여) 씨를 흉기로 위협,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 1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등 3십만 원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7〉

보도내용

「농촌을 돌면서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40대가 붙잡혔다. 김천경찰서 동부지구대는 지난 11일 동모(남·47)씨를 강도 상해혐의로 체포했다. 동씨는 11일 오전 11시 40분경 ○면 ○리 강모(남·66)씨가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해 현금 29만 2천 원을 훔친후 나오다가 강씨에게 들키자 강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68〉

보도내용

「○○ 전 대통령이 ○○ 생가를 방문한 날 생가 근처 가게에 강도가 침입,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오전 5시께 ○○○○○ 전 대통령 생가 옆 가게에 괴한이 침입, 금품을 요구했으나 주인 옥모(여·72)씨가 저항하자 어깨 등을 흉기로 7~8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옥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다. 피해를 입은 가게는 ○ 전 대통령 생가와 20여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생가를 방문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추지할 수 있도록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 2006자심69〉

보도내용

「옥천경찰서는 6일 대낮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털 김모 씨(4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옥천군 ○○면 ○○리 문모 씨(62) 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현금 32만원과 10만원 짜리 상품권, 다이아몬드 반지 등 금붙이 14개를 털다 문씨에게 발각되자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중략...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근 마을서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도 김씨 소행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70〉

보도내용

「목포해경은 90대 노인이 인생비관으로 농약을 음독, 의식불명 돼 긴급 이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께 전남 OO군 OO도 O리 자택에서 최모(여·93)씨가 인생비관으로 음주 후 농약을 음독해 자살기도를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 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71〉

보도내용

「지난 3일 오후 3시께 단양군 OO면 O리 박모(63·농업)씨의 집에서 박씨의 딸(35·OOOO)이 제초제를 마시고 신음하는 것을 박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시간만에 숨졌다. ... 중략 ... 경찰은 숨진 박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OO생활을 마치고 5년 전부터 친정집에서 머물렀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박씨가 신병을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직업과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4. 17.

〈안전번호 2006자심72〉

보도내용

「16일 오후 3시 50분께 통영시 OO동 OOOOO 내 1만3천t급 화학제품운반선 하부 탱크에서 작업인부 백모(52·여·통영시 OO동)씨와 윤모(58·여·통영시 OO동)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해경은 17일 유독가스 유출이 우려되는데도 강제 통풍구 개방 및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OOOOO OOOOO장 제모(36)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규선박인 경우 선체 내부에 산소가 부족하고 페인트 등에서 유독가스가 방출되는데도 탱크의 청소작업을 지시하고, 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4〉

보도내용

「충주경찰서는 고객 돈 1억 1500만 원을 갖고 잠적한 전 국민은행 직원 이모(37)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31일 대전 OO지점에 근무하면서 지인인 A(63·여)씨로부터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대출상환금 1억 15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토록 한 뒤 그 해 11월 15일 전산 상으로 상환처리만 해놓은 채 잠적했다. ...중략... 한편 검찰은 이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前 근무처 및 근무 시기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5〉

보도내용

「부산 해양경찰서는 1일 선상에서 중국인 산업연수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통발어선 선원 권모(30)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부산선적 연근해 통발어선 〇〇호(79t)에서 작업중 뱃멀미로 괴로워하던 중국인 산업연수생 유모(25) 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권씨는 또 유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동창고에 감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선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선박명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 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6〉

보도내용

「“백주대낮에 금은방 주인이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전주시청에서 불과 50여m거리에 위치해 있는데다 인근에 치안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오후 2시께 전주시 〇〇동 〇금은방에서 주인 안모씨(54·여)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 후송됐다. 목격자 오모 씨(38)는 “‘강도야’ 하는 소리와 함께 옆구리가 흉기에 찔린 안씨가 찾아와 ‘남편에게 전화해 달라’고 말한 뒤 문 앞에 쓰러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흰색 운동화에 베이지색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180cm가량의 30대 전·후반의 남자를 뒤쫓고 있다.…”는 기사와 피해 금은방이 찍힌 자료사진」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소재지, 영문 이니셜 등을 적시하고 상호가 온전히 드러나 있는 사진을 게재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전번호 2006자심77〉

보도내용

「28일 오전 9시 55분께 〇〇경찰서 정문 앞 별관 교통홍보관에서 〇〇〇〇과 소속 오모(37) 경장이 천장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동료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오 경장이 출근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근무하는 사무실 맞은편 교통홍보관 안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중략… 경찰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간의 재산보증과 노모 병간호 문제로 가정불화와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는 주변의 말에 따라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건번호 2006자심78>

보도내용

「3일 새벽 3시35분께 하남시 하산곡동 중부고속도로 구 하남출구에서 김모(46·서울 동대문구) 씨가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겨 있는 것을 고속도로 순찰요원 김모(27)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고속도로 순찰 도중 고속도로 다리 밑에서 ‘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승용차량(서울 OO거 OOOO·소나타)에 불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병을 비관한 김씨가 가출 하루 전인 지난 2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아버지보다 먼저 가게 되서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다 차량 주변에 버려진 휘발유통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유 차량의 종류 및 차량 번호를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5. 15.

<안건번호 2006자심79 - 2006자심80>

보도내용

「...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양산시 OO읍 소재 사찰인 OOO의 창건주 모 스님(72)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스님은 사찰에 근무하는 여직원인 강모(28·부산 OO), 홍모(25·양산 OO)씨 등 2명을 자신의 처소로 차를 갖다 달라고 요구한 뒤 강제로 3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찰의 여직원인 강씨와 홍씨 등은 종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창건주인 스님이 자신들을 불러 성추행을 일삼았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나이·근무처 등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의자인 스님의 나이·소속 사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읊가지 적시하고 창건주라는 사실 등을 밝혀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81 - 2006자심82>

보도내용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술에 취해 자신의 친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장모 씨(34)에 대해 상해치사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익산시 OO리 OO파

을 자신의 집에서 누나(45)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집 마루에 있던 길이 50cm, 직경 3cm의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 장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일주일 전 집에서 쌀을 훔치고, 평소 술을 마시면 경기도 성남에서 택시를 타고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누나가 이날도 택시비 없이 택시를 타고와 돈을 달라고 하자 홑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조사결과 드러나.»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거주하는 마을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83 - 2006자심85>

보도내용

「양평경찰서는 15일 노숙자를 고용, 자신의 부모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 미수)로 박모 씨(3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노숙자 문모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께 노숙자 문씨를 양평군 〇〇면 〇〇리 자신의 집으로 보내 어머니 장모 씨(71)를 흉기로 위협한 뒤 통장과 카드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도박으로 1억여 원의 빚을 저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어머니의 성·나이와 함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86>

보도내용

「농번기와 선거철을 맞아 농촌마을의 빈집을 돌며 금품을 털어오던 20대가 현장실습 중이던 한 경찰 예비생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으로 상주 남부지구대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경찰 예비생인 최〇〇(34·사진) 씨는 17일 오후 3시쯤 의남면 신상리 일대를 순찰하던 중 골목길을 서성이던 박모(25·〇〇면 〇〇리) 씨를 만났다. 이런 박씨를 수상하게 여긴 최씨는 검문을 시작했고, 박씨가 달아나자 500여m를 쫓아가 검거한 것...」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87>

보도내용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포항시 북구 〇〇〇〇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한 정비업체가 조합장 등 조합 관계자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정비업체인 D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〇〇〇〇아파트

트 재건축조합 김모 조합장과 측근 K씨 등 조합 관계자와 당시 회사 직원이었던 S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들이 정비업체로 지정될 수 있게 힘써 주겠다고 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억여 원 상당의 조합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최근 조합측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해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만을 공표하였으나 피의자가 조합장을 맡고 있는 아파트의 명칭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88>

보도내용

「광양경찰서는 30일 광양의 한 중학교에 발생한 실험실 폭발사고와 관련 이 학교 과학교사 이모 씨(35·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께 광양시 OO동 OOOO중학교 실험실에서 화학 약품에 따라 불꽃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실험을 하다 폭발사고를 내 최모 양(16·여) 등 학생 10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염화나트륨을 넣은 접시에서 황색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메탄올을 추가로 붓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중인 학교의 명칭 및 담당 과목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90>

보도내용

「시각장애 1급 중증 장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98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20대 강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완도 경찰에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조사중인 김모 씨(23·완도군 OO면 OO리)는 지난 19일 밤 10시 40분께 같은 마을에 사는 시각장애 1급 정모 씨(25)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정씨의 집에 침입해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98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 및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건번호 2006자심91>

보도내용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Og을 OOOOO에 회석해 OOOOO에 투약한 임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38세·남)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급책으로부터 금 OOO만원에 구입한 OO OOOO(OOO) 10회 투약분을 구입해 그중 1회분

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 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2>

보도내용

「7일 오전 2시 30분께 ○○○○법원 ○○직(○급) 공무원 박모(33) 씨가 창원시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감모(42)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숨진 박씨가 평소 경륜장을 출입하면서 경륜도박으로 6500만원의 빚을 졌다는 부인 김씨의 진술에 따라 박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넥타이를 문고리에 걸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직종·직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3>

보도내용

「22일 오전 5시 30분께 울주군 ○○면 ○○리 김모(66) 씨의 집 앞마당에서 이 집에 세 들어 살던 주부 정모(53) 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숨져있는 것을 집주인 김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씨가 수년간 우울증을 겪었다는 유가족의 진술에 따라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주소를 리까지 밝혀 본인과 그 유족을 추지할 수 있게 하고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4>

보도내용

「... 1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구 ○○동 ○○○○ ○○아파트 1208동 2xx호에서 ○○○○경찰대 ○○과장 A(37) 경정이 목욕탕 커튼에 끈으로 목 매 숨져있는 것을 동료 경관이 발견했다. 이 경관은 “이날 A경정이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돼 관사로 찾아 가 보니 목욕탕에서 목매 숨진 채로 있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숨진 A경정이 고양시 일산에서 직접 목을 맨 끈을 사온 점, 최근 아내가 암 투병 중인 점 등으로 미뤄 가정 문제를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나이와 함께 생존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동과 층수 및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5〉

보도내용

「○○시청 국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 신모 씨(65)가 1일 오후 9시 25분께 자신의 집 인근 창고에서 팔에 독극물을 투약해 숨져 있는 것을 사위인 박모 씨(34)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신씨의 팔에서 독극물 투입을 위해 주사기를 꽂은 흔적만 있을 뿐 외상이 없고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6. 19.

〈안전번호 2006자심96〉

보도내용

「울산 동부경찰서는 26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울산시 ○구청 직원 손모(38·○급 공무원)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손씨를 대신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범인도피)로 친구 유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친구 유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97 - 2006자심103〉

보도내용

「가평경찰서는 1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들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70)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8시께 가평군 ○면 ○리 자신의 집에서 아들(45)을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들이며느리에게 자동차를 사줬다고 나무라던 중 아들이 대들자 화김에 부엌에 있던 과도로 아들을 찢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전번호 2006자심105〉

보도내용

「진주경찰서는 21일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강모(55)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진주시 장대동 모 실비주점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Og을 OO만원에 주고 구입한 뒤 OO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건번호 2006자심106 - 2006자심114〉

보도내용

「28일 밤 9시경 남양주시 OO동 OOO경찰서 O O지구대 소속 조모(26) 순경이 OO지구대 옆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채 스스로 머리에 권총을 쏘 자살했다. ...중략... 이날 OOO경찰서 OO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조 순경은 그동안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이날 밤 8시 45분경 찾아와 OO지구대 근처에서 만났다. 조 순경은 이들과 몇 마디 말을 나누다 지구대 옆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로 가 운전석에 앉아 스스로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머리에 쏘았다. 조 순경은 지난해 2월 15일 OOO경찰서 OO지구대에 초임 발령됐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직위·발령 시기 등을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건번호 2006자심115〉

보도내용

「지난 19일 오후 4시께 고령군 OO면 OO리 정모(57) 씨가 자신의 집 감나무에 목을 매 숨겨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정씨가 청각장애 기초수급대상자로 혼자 생활해오다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7. 18.

〈안건번호 2006자심116〉

보도내용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아버지와 딸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아버지의 전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김모 씨(37)를 살인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순천시 O O면 OO리 자택에서 아버지(71)의 전처인 김모 씨(71)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자신의 아버지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아버지가 집밖으로 피하자 홧김에 집안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의) 전처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온 아들 김씨가 3년 전 생모가 숨진 뒤 아버지가 전처와 살림을 꾸린 데 불만을 품어오며 부자간 갈등이 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제1항제2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17〉

보도내용

「금산경찰서(서장 고훈근) 진악지구대(경사 길호근, 경장 강재구)는 지난 17일 오후 3시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소재 한진아파트 앞 골목에서 차량절도 혐의로 OO고 1년 송모 군(OO면 거주, 남 16세), OOOO고 1년 변모 군(OO면 거주, 남 17세)을 6시간 잠복근무 끝에 현장에서 동행하여 금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시켰다. 피의자들은 금산군 금산읍 거주 최모 씨(남 48세)의 겔로퍼 승합차량과 전북 남원시 주생면 거주 박모 씨(남 39세)의 봉고프린터어 냉동 탑차를 절취하는가 하면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오토바이를 훔친 혐의이다.」

이 유

위 기사는 미성년피의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학중인 학교명 및 학년 등과 함께 주소를 면까지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소년법 제68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제1항제1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18 - 2006자심123〉

보도내용

「전주 덕진경찰서는 19일 흥기로 강도짓을 하려 한 혐의(강도예비)로 OO교도소 OO교도대 최모(20) 이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이교는 18일 오전 1시께 흥기를 지나고 전주시 금암동 일대를 배회하다 지나가던 10대 2명에게 “인근의 슈퍼마켓을 털자”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이 교도소에 배치된 최 이교는 16일 오후 근무복 차림으로 경비대 막사를 무단이탈한 뒤 이틀간 전주시내를 배회하던 중 만난 10대들에게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신고로 달미가 잡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교도대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계급·자대 배치 시기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4〉

보도내용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31일 실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기 방아쇠를 당겨 동료 경찰관을 숨지게 한 서울 OO경찰서 OO지구대 오모(43)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경사는 지난 2월 8일 오전 7시 39분께 OO구 OO지구대 사무실에서 6연발 38구경 권총의 실탄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방아쇠를 당겨 반대편 의자에 앉았던 동료경찰관 이모(51)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5>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은 2일 동료선원을 폭행하고 물고문 해 숨지게 한 성모(34·목포시 죽교동)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우잡이 연안 자망어선 '○○호'(9.77t) 선원인 성씨는 지난달 28일 신안군 지도읍 송도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김모(31·영광군 낙월면)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후 물을 부어 질식사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김씨의 손발을 묶은 뒤 몽둥이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직업 및 소속 선박명 등과 함께 주소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6>

보도내용

「19일 오후 10시 15분께 의성군 ○○면 ○○리의 김모(62) 씨가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말에 격분해 주택에 불을 질러 김씨의 외손녀 황모(의성 ○○고 1년) 양이 불에 타 숨지고 목조 가옥이 전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20여 년 간 동거해온 김씨가 ○○면 ○○리 딸 변모 씨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주택에 불을 질러 김씨의 외손녀가 숨지고 주택이 전소됐다. 한편 김씨는 불을 지른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 겸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 및 주소를 리까지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녀 딸의 성 및 주소를 리까지 밝히면서 그 외손녀의 성·생존시 소속 학교명·학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8. 21.

<안전번호 2006자심127>

보도내용

「목포해양경찰은 22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전복·해삼·소라를 채취한 혐의로 신안선적 연안복합어선 '○○호'(5t) 선장이모(52) 씨와 해녀 김모(52) 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인 어선 선장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항중인 선박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

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건번호 2006자심128>

보도내용

「... 1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 중부경찰서 북문지구대 사무실에서는 가냘픈 여중생이 경찰관들에 둘러 싸여 칭찬을 받고 있었다. 칭찬의 주인공은 최○○(17·○○중 3년)양. 최양은 귀가중이던 여대생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를 맨손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최양은 이날 8시 50분쯤 수원시 연무동 수원천변을 걷고 있었다. 이때 비명 소리가 들렸다. 다름 아닌 이모(18) 군이 신모(22·여·대학 3년) 씨에게 칼을 들이대고 강도행각을 벌이고 있었던것. ... 중략 ... 최양은 이군이 휘두르는 흉기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마침 이군을 지나던 위○○(24·○○대 ○○과)씨가 이 광경을 보고 합세했다. 갑자기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모 군은 당황했고 결국 출행량을 치려했다. 그러나 위씨가 이모 군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 틈에 최양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검거자들의 성명·나이·재학중인 학교명·학년 등을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건번호 2006자심129>

보도내용

「대구 서부경찰서는 06. 8. 14경 거주지 및 공터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속칭 ○○○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 교부하여온 일당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모(32세) 피의자는 06. 7월 중순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네거리 은행앞 노상에서 성불상 홍기로부터 공모(40세) 피의자에게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그램 상당을 ○○만원 받고 공모 피의자에게 교부하는등 전후 4회에 걸쳐 필로폰 ○그램 상당을 판매하고, 공모 피의자는 06. 8. 7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3가 소재 빌딩 앞 노상에서 이모 피의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중 1회 투약분 ○그램 상당을 ○만원 받고 박모(41세) 이모(41세) 피의자에게 판매하고 ○○○○를 이용하여 ○○에 투약하고 남은 ○○○ 2.62그램 상당을 소지하고, 박모 이모 피의자는 각 주거지 등지에서 ○○○○를 이용하여 ○○에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1회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건번호 2006자심130>

보도내용

「대구 성서경찰서는 06. 8. 31경 마약류인 대마초 ○그램을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소지하고 ○에 끊여 1회 섭취한 김모(40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06. 6. 28경 경북 영천시 ○○읍 ○○시장에서 불상의 70대 할머니로부터 ○○○ ○그램을 ○○○원에 매입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승용차 뒤 트렁크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을 ○에 끊여 1회 섭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대마초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1〉

보도내용

「8월 셋째주말 충북지역은 90대 노인이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20일 오전 9시 20분께 청원군 OO면 OO리 연모 씨(90·여) 집에서 연씨가 체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손자 한모 씨(3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연씨가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손녀의 처지를 비관해왔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2 - 2006자심136〉

보도내용

「21일 오전 7시께 OO경찰서 4층과 옥상 사이 비상계단에서 이 경찰서에 근무하는 김모(22·서

울 노랑진구) 일경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일경을 발견한 경찰서 직원은 “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강당으로 올라가던 중 김 일경이 파이프에 목을 맨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김 일경이 이날 오전 4시경 평소 잘 지내던 여자친구가 전화로 헤어지자고 말한데 대해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등의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이성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전투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경찰서와 계급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37〉

보도내용

「경찰서 과장이 지병을 비관해 원룸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OO구 OO경찰서 보안과 Y과장(56·경정)이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으나 숨졌다. ...중략...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Y경정이 폐암 진단을 받고 그동안 신병을 비관해왔다는 것으로 보아 지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 성의 영문이니셜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건번호 2006자심138 - 2006자심139〉

보도내용

「휴직을 마치고 귀대를 앞둔 의경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8일 오전 5시 25분께 영주시 000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000대 소속 박모(21·봉화군) 일경이 추락해 사망한 것을 아파트 경비원 한모(66) 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지난해 12월 입대해 우울증세로 4월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5월 29일부터 3개월 휴직에 들어가 이날 귀대할 예정이었다는 소속 부대 부관의 말에 따라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인 의무경찰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소속 부대·계급·입대 시기·휴직 일자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건번호 2006자심140, 2006자심156〉

보도내용

「00축협 같은 부서의 과장·계장이 연이어 자살, 유족들이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1일 오전 6시께 평택시 통북동 소재 1호국도 통북교량에 00축협 00사업소 계장인 이모 씨(45·00시 00동)가 교량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김모 씨(41)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이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과

장 최모 씨(46·00시 00읍)가 사업소 보일러실 배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직원 이모 씨(2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들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건번호 2006자심141〉

보도내용

「지난 1일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40대가 4일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런데 바로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지난 1999년 '0000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0모 변호사의 당시 사무장이었다는 것 때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변호사 사무장까지 지냈던 그가 왜 살인에 이어 자살까지 하게 되었을까. 경찰의 수사가 진척되면 자세한 사건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돈과 여자관계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쯤 대전 중구 안영동 야산 중턱에서 채소밭에서 김모(48)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밭 주인 나모씨(50)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목에 전기줄이 감겨진 채 상당 부분 부패한 상태인 것으로 미뤄 사망한지 이틀 정도 지났고 사망 원인은 자살로 경찰은 추정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이면서 자살자인 특정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가 대전 범조비리 사건의 당사자였던 L모 변호사의 당시 사무

장이었던 사실을 밝혀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동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9. 18.

〈안전번호 2006자심142〉

보도내용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양산의 사찰 창건주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이평근 판사는 26일 사찰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됐었던 양산 ○○읍 소재 ○○○ 창건주 허모(72) 스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찰의 큰 스님으로서 직원들을 인사하고 감독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직위를 이용해 여직원 2명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략… 이 사찰의 여직원 강모(28) 씨와 홍모(25) 씨 등은 각각 7개월과 2년 동안 종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사찰 창건주 허모 스님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근무 기간 등을 적시하여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3〉

보도내용

「지난 11일 밤 9시35분께 남양주시 ○○면 ○○리 1층 주택에서 20kg짜리 가정용 LPG 가스통이 폭발해 집주인 노모 씨(41)가 화상을 입고 구리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중략… 경찰조사 결과 이날 오후 6시께 별거중이던 노씨의 아내가 찾아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돌아간 뒤 노씨가 가스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에 불을 붙여 폭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하여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별거중인 사실을 밝혀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헌법 제1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4〉

보도내용

「뽕소니 사망사고의 범인을 붙잡고 보니 사망자와 한마을에 사는 5촌 조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인척간 서로 망연자실했다. 13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제 ○○면 ○○리 한 마을에서 뽕소니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76·여)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범인 이모(50) 씨를 붙잡아 특가법상 도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이씨는 범인 이씨의 당숙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김제시 ○○면 ○○리로 귀가하다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자신의 당숙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5>

보도내용

「거제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 56분께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로 건축업자를 살해한 장모 씨(62·부산 ○구·○○○○대표)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7일 오후 5시께 거제시 ○○면 폐교교실에서 건축업자 정모 씨(44)와 술자리를 하면서 2004년 공사한 체불임금 3천 5백만 원에 대한 결제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격분한 장씨가 술자리에 있던 과도로 정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가 특정 시설의 건립 대표라는 사실과 함께 그 시설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6 - 2006자심147>

보도내용

「불이 난 아파트 방 안에서 초등학생이 양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오후 3시 40분께 울산 ○구 ○동 ○○○○아

파트 ○○○동 14층 윤모(32·여) 씨의 집 화재 현장에서 윤씨의 아들 박모(8) 군이 양손이 묶이고 입에 청테이프가 붙여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아파트 거실에서 발견된 박군은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있었다. 또 박군 옆에는 야구 방망이와 부엌 칼이 놓여 있었고 방안의 옷장과 서랍은 뒤진 흔적이 발견됐지만 아파트 출입문은 잠긴 상태였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어머니의 성과 나이 및 생존시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칭·동·층수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전번호 2006자심148 - 2006자심149>

보도내용

「백주대낮 대로변에 있는 농협 지소에 공기총을 든 강도가 침입했다가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났다. 19일 오전 11시 54분께 논산시 ○○면 ○○리 ○○농협 ○○지소에 공기총을 들고 검은색 모자와 같은 색 겨울점퍼를 머리에 뒤집어쓴 괴한 1명이 침입했다. 이 괴한은 “돈을 내놓으라”고 2번 위협한 뒤 지소 직원 남모(여·43) 씨가 책상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자 농협 밖에 미리 세워 둔 차량을 타고 계백장군 묘 방면으로 도주했다. …중략… 지소장 신모(46) 씨는 “170cm 가량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괴한이 공기총을 겨눈 뒤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며 “비상벨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괴한을 80여m 쫓아갔으나 붙잡지 못했다”며 “매주 우발상황에 대비한 예방훈련을 해 직원들에 대처

요령이 배어있던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미수사건의 신고자와 진술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50 - 2006자심152>

보도내용

「농협에 복면강도가 침입해 현금 228만원을 털어 달아났으나 3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오후 4시 50분께 울산시 OO군 OO읍 OO리 OO농협 OO지점에 복면을 한 권모(41·울산시 OO군) 씨가 흥기를 든 채 뒷문으로 침입했다. 권씨는 직원 천모(39) 씨를 폭행하고 다른 직원 3명을 흥기로 위협한 뒤 창구에 있던 현금 228만 원을 털어 달아났다. 농협 직원들은 “정문을 닫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으로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했다”며 “곧바로 경찰로 연결된 신고벨을 누르면서 강도에게 화분을 던지며 대응했지만 뒷문으로 다시 달아났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를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53>

보도내용

「수원 남부경찰서는 17일 000을 구입해 수차례에 걸쳐 투약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스포츠댄스학원장 김모(47) 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권모(44)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길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권씨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000000(000) Og을 0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000을 00에 섞어 마시는 등 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인 필로폰의 사용량·사용방법·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54 - 2006자심155>

보도내용

「군산경찰서는 20일 군산일대 여관을 돌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조모 씨(29·군산시 OO면)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군산시외버스 터미널에서 00000(일명 000) 00정을 00만 원에 구입해 총 5차례에 걸쳐 40정을 투약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명칭·사용량·구입가격 등을 적시, 독자로 하여금 약물 사용을 유발케 할 우

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57〉

보도내용

「... 생활안전과 지령실 근무 김○○ 경위는 지난 5일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경찰서로부터 김천시에서 소재불명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정○○양이 2회에 걸쳐 농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김천소방서 상황실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한 바, 직계존속외는 조회불능이라는 통보를 받고, 정○○양(78년생)에 대하여 컴퓨터조회를 실시 김천시 ○○동 ○○○번지(세대주 ○○○)로 확인되어 즉시 역전지구대 112순찰차를 정○○양 거처로 출동토록 해 김천소방서 구급차 지원을 요청, 구급차와 112 순찰차를 황금성당뒤 정자나무 주변에서 합류토록 유도하여 정○○양을 발견 신속히 김천의료원으로 후송함으로 2회에 걸쳐 음독한 자살기도자의 생명을 구하게 되자 가족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명·나이·주소·세대주의 성명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58 - 2006자심159〉

보도내용

「경찰 간부가 음독 자살을 시도해 생명이 위독

하다. 지난 6일 새벽 2시 15분께 ○○경찰서 ○○○○과 ○○○○장인 박모(46) 경위가 ○○군 ○○면 자신의 어머니 김모(67) 씨 집에서 유서를 남긴 채 농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김씨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중략... 경찰은 박 경위가 남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 자세한 음독 배경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미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60〉

보도내용

「대구 중부경찰서는 06. 9. 6경 시내 중심가의 공중전화기에 ○○○○를 집어넣어 전화이용자들이 동전이 낙전되지 못하게 한 후, 그 동전을 절취한 안모(42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06. 8. 6경부터 9. 6까지 대구시 중구 상서동 22 소재 모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동대구지사 소유의 공중전화를 비롯, 시내 중심가 29개소의 공중전화 동전투입구에 미리 노란색 ○○를 집어 넣고 그 사이 고객들이 전화를 하기 위해 투입한 동전이 투입구에 쌓이게 한 후 준비한 철사 등을 이용, ○○를 꺼내 걸려 있던 동전이 반환구로 떨어지게 하는 수법으로 매일 저녁 공중전화기에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익일 10:00경 수거하는 방법으로 22개소 29개의 공중전화에서 전후 약 321회에 걸쳐, 도합 112,35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독자들

로 하여금 모방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7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61 - 2006자심162〉

보도내용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친구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며 폭발한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그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의 손가락을 도끼로 내리친다. 1993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 ‘피아노’의 한 장면이다. 광주에서도 이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엽기적인 손가락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 아내의 불륜에 화가 치민 남편이 상대 남성의 손가락을 잘라버린 것이다. 지난 7일 오후 7시 광주시 ○구 ○동 정모(44·부동산중개업) 씨의 사무실. 임모(34·자영업)씨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울부짚었다. 응접용 탁자에는 날카로운 흉기 등 3개의 도구가 놓여있었다. 경기도가 주거지인 임씨가 이곳에 끌려온 것은 8년 전 정씨의 아내(43)와 저지른 불륜이 들통난 때문. 평소 아내의 행실을 의심해온 정씨는 최근 임씨에게 전화를 걸어 8년 전의 일을 꼬치꼬치 추궁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0. 30.

〈안건번호 2006자심163〉

보도내용

「...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대학 ○○○○학과 부교수 김모(44) 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0일 밤 10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지구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조교인 이모(여·24)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네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조교 이씨와 ○○동 K 호프집에서 병맥주(7병)·생맥주(1,600cc)를 나눠 마신 뒤 “다른 데로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재직중인 대학의 영문이니셜·학과·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4〉

보도내용

「대구 달성경찰서는 산행을 함께 다녀오다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남 ○○○○직원 조모(47) 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5일 오후 7시쯤 동료 직원과 함께 산행을 갔다 오던 중 구마고속도로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 옥모(42)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옥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5〉

보도내용

「최근 농지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무법지대를 만들던 30대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 씨(37세)가 양평군 OO면 OO리 소재 모 횃집을 운영하면서 관할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0평 가량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물의를 일으켰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2004년 9월께 양평군 OO면 OO리 OOOO번지 외 5필지에 대해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00평 가량은 주방,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약 100평 가량 불법 증축했다. 또 2005년 5월께 농업진흥구역내의 O리 OOO O번지 외 6필지 농지에 군청의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및 운동장으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잔디를 식재해 약 1,500평 가량을 축구장으로 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1년 4월경에는 O리 OOO번지에 지방 2급수 하천에 원두막 4개를 신축하는 등 하천구역 내의 토지 약 101평을 무단 점용해 하천법을 위반하고 2004년 9월경 O리 OOOO번지에 단독 정화를 설치하거나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증대시켜야 함에도 이를 어긴 채 기존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그가 운영중인 업소의 유형 및 소재지와 함께 불법증축혐의 관련 세부내용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6〉

보도내용

「... 인천중부경찰서(강력1팀)는 한모(업주·46) 씨를 도박장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인천 O구 OO동 소재에 폐업된 무도학원을 임대하여 OOOOO이라는 위장 무도장 간판을 걸어놓고 이곳에다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을 현금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운영 중인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7〉

보도내용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던 사립학교에 교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 낸 혐의(사기)로 전직교사 염모 씨(52·전주시 OO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H고 교사였던 염씨는 지난 2004년 10월초 전주시 OO동 O고교 기숙사 사감실 내에서 영어교사 채용을 도와달라는 이모 씨(38)의 부탁을 받고 “학교법인 실권자와 친한니까 채용을 돕겠다”며 1,100만 원을 받는 등 소개비 및 학교발전기부금 명목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8,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하던 학교의 영문이니셜 및 재직 시기 등과 함께 소재지를 동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68 - 2006자심169〉

보도내용

「19일 새벽 3시께 안동시 ○○면 ○○리 백모(66·여) 씨의 집 안방에 괴한이 침입, 잠자던 백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백씨를 이불로 덮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금품을 요구하다 저항하는 백씨의 목과 앞면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것. 백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30~40대 남자로 보인다는 백씨의 진술을 토대로 방법용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사건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70 - 2006자심174〉

보도내용

「... 10일 오후 8시 20분께 옥천군 이원면 장찬리 경부선 철도 굴다리 아래서 인근 마을 서모(49)

씨가 자신의 승용차 옆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 김모(24·여) 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3시간여만에 숨졌다. ...중략... 경찰은 “미혼인 서씨가 지방선거에 실패한 뒤 처지를 비관해왔으며 지난 1일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해 5일간 병원치료 받았다”는 부친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씨는 지난 5·31지방선거 때 ○○○당 ○○○○ 후보공천을 신청했다가 여론조사에서 뒤져 낙천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특정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낙천자라는 사실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75 - 2006자심177〉

보도내용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중간지점에서 ○○○○○ 직원이 회사업무용 차량을 몰고 와 차를 세워 놓고 바다로 뛰어들어 투신자살했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59분경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기점 서울방향 12km 지점 영종대교에서 ○○○○○ 전력운영팀에 근무하는 김모(39·인천 ○구 ○○동) 씨가 투신자살했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소속 부서·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78 - 2006자심179〉

보도내용

「...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 5리 선착장에서 부패된 여자의 오른 손목이 예리한 흉기로 절단된 채 발견돼 손가락에서 어렵게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센터에 신원 확인을 의뢰한 결과 김씨의 아내인 박某(44) 씨의 손목으로 밝혀져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26일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 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1. 20.

〈안건번호 2006자심180〉

보도내용

「여자친구의 결별요구에 탈영을 했던 의경이 한 달만에 또 다시 탈영했다. 13일 청주〇〇경찰서에 따르면 〇〇서 〇〇〇〇 소속 김모 이경(20)이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쯤 자체 군기교육을 받던 도중 몰래 경찰서를 빠져 나갔다. ...중략... 경찰은 김 이경이 애인(22)과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전환장으로 2주간 경찰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는 등 애인에 대한 집착으로 탈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유

위 기사는 정신병력이 있는 의무경찰의 성과 나 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경찰서·부서·계급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1조제4항, 형법 제307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5조제1항제2호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1〉

보도내용

「경북 경산시의원 전모(41·한나라·하양-진량-와촌) 씨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강모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강모 씨는 지난 〇〇〇〇선거에서 피살된 전 의원과 함께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던 경쟁자의 〇〇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들 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〇〇〇〇 선거 당시 경산시 하양-진량-와촌 시의원 선거에는 모두 9명이 출마해 4명이 당선됐는데, 용의자 강씨의 〇〇은 〇위에 그쳐 낙선했다. 선거 과정에서 특히 강씨와 전씨는 〇〇지역 동향 출신인데다 연령층과 성향, 지지기반이 비슷한 관계여서 선거기간 내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강씨는 〇〇 공천에서도 하양지역 몫의 당 공천을 전씨에게 뺏겨 탈당하면서 감정의 앙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만을 공표하였으나 특정 기초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후보의 형이라는 사실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2〉

보도내용

「예배 중인 목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및 예배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파문을 일으킨 교회 장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엄종규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모(68)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략… 검찰에 따르면 포항 ○○교회 장로인 박씨는 지난 2005년 7월 예배 중인 당회장 이모(57) 목사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 1월1일 교회 송구영신 예배직후 집사 손모(57) 씨 등 지금까지 모두 3명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특정 교회의 장로라는 사실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3〉

보도내용

「울진군위원의 공무원 폭행사건에 이어 ○○소방서 ○○ 과장(48)이 만취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해 물의.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 과장은 21일 0시 30분쯤 울진읍 K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울진중부지구대로 연행된 뒤 근무 중인 장모 경사(48)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것. 경찰은 ○ 과장을 공무원집행방해혐의로 입건한 뒤 폭행 경위를 조사중.」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4〉

보도내용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22일 석산업체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실을 고발한 후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며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합 ○○지부장 황모 씨(44)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 21일 익산시 ○○면에서 ○○○○업을 하는 D업체 대표 김모 씨(52)가 허가구역 외에서 토석채취를 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접수하고 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빌미로 김씨에게 향후 고발과 같은 일로 괴롭히지 않을 것을 내세우며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소속 노동조합의 명칭과 직위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5〉

보도내용

「○○○○○ 직원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산소 호스를 잘못 연결한 ○○○○○○팀 손모(26)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2시8분께 1만3천t급

화학제품운반선 탱크 내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숨진 강모(50) 씨에게 공기를 주입하는 호스 대신 산소 호스를 잘못 연결한 손씨를 입건, 회사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소속 부서 등을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6>

보도내용

「공주경찰서는 지난 2004년 10월 중순경부터 2006년 11월 26일 22:00경까지 상습적으로 하루 2-3회씩 대마초를 흡연하고, 대마초 약 90그램을 보관한 피의자 김모 씨(남, 40세)를 공주시 OO면 OO리 소재 자택에서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음이 없이 대마를 상습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공주시 OO면 OO리 소재 야산에서 대마잎을 채취한 다음 방에다 건조시켜 피의자의 방안 찬장 위에 대마초 약 90그램을 보관하고, 하루 2-3회씩 흡연을 해왔다.」

이 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 피의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주소를 리까지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헌법 제27조제4항, 형법 제126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7>

보도내용

「... 두 딸을 둔 주부 조모(30) 씨는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복면을 쓰고 고척동 ○○○○로 들어갔다. 조씨는 손님 노모(여·60)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1분간 직원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평범한 주부 조씨의 은행털이가 성공할 리 없었다. 창구에 있던 박모(38) 과장이 비상벨을 누른 뒤, 가스총을 들고 창구를 뛰어넘어 조씨에게 다가갔고, 겁을 먹은 조씨는 바닥에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려 했다. 조씨는 당황한 나머지 당겨야 열리는 문을 밀다가 결국 박 과장에게 붙잡혔다....」

이 유

위 기사는 강도미수사건 검거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근무처와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8조,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제2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건번호 2006자심188 - 2006자심200>

보도내용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38)가 사격 훈련 도중 자살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사는 9일 오전 10시 5분께 도봉경찰서에서 사격 훈련을 하다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쏜 뒤 쓰러져 상계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경사는 이날 도봉경찰서에서 열린 ○○경찰서 소속 외근 직원들의 정례 사격 훈련에 참가하던 중이었다....」

이 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하였으나 생존시 근무처와 직위 등을 적시, 본인과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9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최근 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뒷부분은 삭제)

이 유

위 기사는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권고심의기준 제7조제1항 위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정을 권고합니다.

2006. 12. 11.



<안전번호 2006자심201>

보도내용

신청심의 시정권고

<안전번호 2006신심14>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신문 社告를 통해 “국가청렴위 발표 ... ○○시 청렴도(부패지수) 전국 꼴찌, 불명예 퇴치운동에 지방의회와 함께 ○○신문사에서 앞장서겠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 자사 홍보를 위해 전면을 이용하여 1. 5부터 3. 23.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 ‘불명예 퇴치운동에 지방의회와 함께 ○○신문사가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보도내용 중 ‘지방의회와 함께’라고 표현한 것도 ○○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바, 사실이 아니며 ▲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광고 게재 행위는 언론사의 입장을 표명하는 통상적인 정도와 방식을 벗어난 악의적인 보도로서 ○○시와 소

속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더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지 않도록 시정권고해 줄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업무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도는 감시와 계도차원에서 용인되는 피신청인의 고유한 기능이라 할 것이고, 해당 단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도 합당한 언론활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동일 사안에 대해 8회 연속하여(4월 6일자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어 4월 17일 현재 모두 9회 보도됨) 한 개 지면 모두를 할애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비록 그 보도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반복적·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한 것임은 물론 공익 추구를 위해 용인되어질

수 있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또한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부인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이 건 시정권고 신청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이 건 관련 보도가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조(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권고를 결정한다.

2006. 4. 17.

〈안건번호 2006신심39〉

이 유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 기사를 통해 “2007년도 수능 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물과목에서는 ‘황우석 파문’과 관련, 줄기세포가 거짓임이 확인된 과학적 과정을 고스란히 다룬 시사적인 문항이 출제되었다. 생물Ⅱ의 18번은 핵치환 과정을 통해 체세포복제 줄기세포를 만들고 핵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유전자 지문검사를 실시해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과학적 과정을 다뤘는데, 이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거짓임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과정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정답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가 가짜인 것으로 나왔다”는 요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문제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핵을 제공한 회색 쥐와 세포질을 제공한 흰색 쥐, 그리고 복제 배양된 줄기세포를 구분하는 문제로서 줄기세포가 가짜임을 확인하는 과정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또한 ‘정답도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가 가짜로 나왔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해당 보도는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여 혼란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황우석 교수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사과 및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정을 권고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에 의한 당 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건전한 언론문화를 유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사회·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2006년도 수능능력시험 생물Ⅱ의 18번 문제(이하 ‘해당문제’)는 핵을 제공한 회색 쥐의 세포와 세포질을 제공한 흰 쥐의 세포, 그리고 이를 통해 복제에 성공한 줄기세포에서 DNA를 각각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고 각 세포를 구분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실험과정의 도입부분에서도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해당문제는 피신청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줄기세포가 거짓임이 확인된 과학적 과정을 고스란히 다룬 문항”이라던가, “줄기세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과학적 과정을 다룬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또 “정답도 ... 줄기세포가 가짜인 것으로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해당문제에 대한 ○○○○방송측의 해설을 참조하여 보더라도 이 건 기사는 해당 문제를 적합하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건 기사로 인해 수험생들과 수능시험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시정권고를 결정한다.

2006. 12. 11.

□

